

## 【제 2 세션】

한일 국제심포지엄 「정부간 합의 이후의 위안부문제」 메모

기시 도시미쓰(岸俊光、마이니치 신문 논설위원)

### 1. 위안부 문제와 나

- 2004 ~ 05 년 도쿄대 「『위안부』 문제를 통해 인간과 역사와 사회를 생각한다  
(『慰安婦』問題を通して人間と歴史と社会を考える)」 수업 참가
- 2007 년 오누마 야스아키(大沼保昭)교수와의 공저  
『위안부 문제라는 물음(慰安婦問題という問い)』을 출판
- 2015 년 마이니치 신문 연재 「『속죄』라는 물음(『償い』という問い)」 (27 회)
- 2016 년 마이니치 신문 르포 「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의 현장  
(元慰安婦 支援事業の現場)」  
마이니치 신문 「조선인 체포 미심문조서발견  
(朝鮮人捕虜 米尋問調書発見)」

### 2. 일본국내의 「한일합의」 평가

- 합의 다음날 (2015년 12월 29일) 재(在)도쿄 신문 사설의 표제
  - 아사히 「역사를 넘어 한일의 전진을(歴史を越え日韓の前進を)」
  - 마이니치 「한일합의를 환영한다(日韓の合意を歓迎する)」
  - 요미우리 「한국은 『불가역적해결』을 지켜라 소녀상의 철거도 중요한 시금석이다  
(韓国は『不可逆的解決』を守れ 少女像の撤去も重要な試金石だ)」
  - 닛케이 「『위안부』 결착의 추세로 한일재구축을  
(『慰安婦』決着弾みに日韓再構築を)」
  - 산케이 「정말로 이것으로 최종결착인가 한국측의 약속이행을 주시한다  
(本当にこれで最終決着か 韓国側の約束履行を注視する)」
  - 도쿄 「『타결』의 무게를 배웠다(『妥結』の重さを学んだ)」
- 한국 「화해·치유 재단」 설립 다음날 (2016년 7월 29일) 재 도쿄 신문 사설의 표제
  - 아사히 「시작에 불과하다(緒に就いたにすぎない)」
  - 마이니치 「간신히 여기까지 왔다(ようやくここまで来た)」
  - 요미우리 없음
  - 닛케이 「위안부 피해자 지원의 착실한 이행을

(元慰安婦支援の着実な履行を)」

산케이 「한국이 성의를 보일 차례다(韓国が誠意をみせる番だ)」 ( 28 일 )  
도쿄 「해결까지 한일은 함께(解決まで日韓は共に)」

• 여론 조사

▽아사히 ( 2016 년 1 월 19 일 )

합의 「평가한다」 63%、 「평가하지 않는다」 19%  
군의 관여 인정 「평가한다」 60%、 「평가하지 않는다」 23%  
한국이 만드는 단체에 대한 10 억엔 지출 「타당하다」 35%、  
「타당하지 않다」 49%  
합의는 한일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가 「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」 54%、  
「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」 31%

▽마이니치 ( 2016 년 2 월 1 일 )

합의 「평가한다」 65%、 「평가하지 않는다」 25%  
합의에 의해 문제가 「해결되는 것은 어렵다」 72%、 「해결된다고 생각한다」 19%

▽요미우리 ( 2016 년 1 월 11 일 )

합의 「평가한다」 49%、 「평가하지 않는다」 36%、 「대답 없음」 19%  
앞으로 한일관계는 「개선」 50%、 「개선되지 않는다」 38%、 「대답 없음」 12%

▽한국 갤럽 ( 2016 년 1 월 8 일 )

합의 「평가한다」 26%、 「평가하지 않는다」 54%  
합의 「재교섭을 해야한다」 58%、 「재교섭을 하면 안된다」 28%  
소녀상 「합의내용을 일본이 이행하느냐 아니냐에 관계없이 이전은 안된다」 72%  
「일본이 이행하면 이전해도 된다」 17%

▽일본의 언론 NPO 와 한국 · 동아시아 연구원 ( 2016 년 6 ~ 7 월 )

일본 합의 「평가한다」 47.9%、 「평가하지 않는다」 20.9%  
한국 합의 「평가한다」 28.1%、 「평가하지 않는다」 37.6%

3. 한일 교섭을 돌아본다

• 고노 담화에서 아시아 여성 기금까지 ( 1993 ~ 2002 년 )

1993 년 8 월 4 일 고노 요헤이(河野洋平) 관방장관 담화.

1995 년 8 월 15 일 무라야마 도미이치(村山富市) 수상 담화.

1997 년 1 월 ~ 2002 년 5 월, 아시아 여성기금이 한국에서 「속죄 사업(償い事業)」을 실시. 총리의 사죄 편지에는 하시모토 류타로(橋本龍太郎), 오부치 게이조(小淵恵三),

모리 요시로(森喜朗), 고이즈미 준이치로(小泉純一郎)로 구성된 4 명의 수상이 서명.

· 민주당 ( 노다 요시히코、野田佳彦 ) 정권의 교섭 ( 2011 ~ 2012 년 )

2011 년 12 월 18 일 노다 요시히코 수상과 이명박 대통령이 교토에서 한일정상회담.

2012 년 3 월 외무성의 사사에 겐이치로(佐々江賢一郎) 차관이 방한하여, 「사사에 안」을 제시.

2012 년 4 월 사이토 쓰요시(齋藤勲) 관방 부장관이 방한하여 수상 친서를 전달.

2012 년 10 월 사이토 쓰요시 관방 부장관과 이동관 대통령 특사가 도쿄에서 회담.

· 아베 신조(安倍晋三) 정권의 교섭 ( 2013 ~ 2015 년 )

2013 년 10 월 16 일 산케이 신문이 고노 담화의 근거가 된 일본정부에 의한 위안부 피해자 여성에 대한 청취보고서를 입수하여, 부실한 보고서였다고 보도.

2014 년 2 월 27 일 마이니치 신문이 1996 ~ 2002 년에 3 국 1 지역의 피해자에 대한 사업 실시 내역에 대해 한국 60 명▽대만 13 명▽필리핀 211 명▽네덜란드 79 명

이라고 보도. 02 년 시점에서 한국정부가 인정한 위안부 피해자는 207 명으로,

사업을 받아들인 사람은 3 할에 미치지 못함. 또한 기금의 수입 내역은,

「속죄금(償い金)」 모금 5 억 6500 만엔▽의료 · 복지지원용 정부거출금

11 억 2000 만엔▽사무 사업 경비등 정부 보조금 35 억 500 만엔▽

총액 51 억 9000 만엔. 약 9 할이 정부 지출.

2014 년 6 월 2 일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(정대협)을 포함한 아시아 연대

회의가 일본정부 및 군이군 시설로써 「위안소」를 입안 · 설치하고, 관리 ·

통제했던 점, 여성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「위안부 · 성노예」가 되었던 점을

인정하고, 일본정부에 공식적인 사죄, 배상 등을 요구하는 제언을 행함.

2014 년 6 월 20 일 일본정부가 고노 담화 검증 보고 「위안부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의 협의 경위 ~ 고노 담화 작성부터 아시아 여성 기금까지 ~」를 공표.

2014 년 8 월 5 일 아사히 신문이 위안부 보도를 검증.

2015 년 8 월 6 일 20 세기를 돌아보며 21 세기 세계질서와 일본의 역할을

구상하기위한 전문가 간담회 ( 21 세기 구상 간담회 ) 가 아베 신조 수상에게 보고서를

제출.

2015 년 8 월 14 일 아베수상, 전후 70 년 담화.

2015 년 12 월 28 일 한일합의.

2016 년 7 월 28 일 한국 「화해 · 치유 재단」 설립

4 . 남겨진 과제

- 「화해·치유」 재단에 혼을 불어넣기.
- 일본 정부에 의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시적인 사죄는 존재하는가.
- 소녀상 문제.
- 식민지 지배의 책임 등, 과거를 물려받아 역사연구의 깊이를 더한다.
- 아시아 여성 기금의 「실패」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.

이상.

번역 : 이선형 (도쿄대학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박사과정, 한국학연구부문 RA)